

건교부 신공항기본계획 변경

영종도 수도권신공항 활주로 4본중 1단계 사업계획기간(92~99년)에 활주로 2본이 건설되며 공항과 수도권 주요지역간의 연계 교통망 역할을 할 복합교통센터가 신설된다.

또 공항이용자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할 종합정보센터가 추가 건설되고 여객 터미널 규모가 당초 7만8천7백평에서 10만8천평으로 확충된다.

건설교통부는 8월 25일 2천년대 항공수요증가와 주변국 공항과의 경쟁에 대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공항 1단계 기본계획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1단계 기간중 당초 1본으로 계획했던 활주로를 2본으로 늘려 건설하고 이용객증가와 편의제고를 위해 여객터미널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만평정도 늘리기로 했다.

또 철도 차량등의 각종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연면적 1만8천평, 지하3층 지상2층 규모의 복합교통센터를 여객터미널 전면에 신설하고 7천5백평규모의 종합정보센터도 만

들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사업계획변경으로 1단계 사업비가 당초 3조 9천8백65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나고 공항부지도 3백55만평으로 증가하게 되지만 신공항 개항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종도 신공항은 지난 92년11월 1단계사업에 필요한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돼 20.4%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99년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6개월간의 시험운영기간을 거쳐 2000년7월 개항 예정이다. 2단계중 최종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된다.

예천-제주간 항공노선, 15일 개설

경북 북부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이던 예천-제주간 항공노선이 8월 15일 개설됐다.

대한항공이 매일 1회 왕복 운항하는 이 항공노선은 비행소요시간 1시간20분으로 항공료는 편도 5만1천4백원이다.

대한항공측은 이날 노선개설 기념으로 예천군내 소년소녀가장 20명을 무료로 태워 2박3일간의 제주도 관광을 시켜주었다.

강릉-울릉 내년부터 헬기 운항

내년 1월1일부터 강릉-울릉도 간에 헬기 노선이 개설돼 하루에 2회씩 운항된다.

9월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시티항공(대표 김철영)이 신청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 신규등록을 이날짜로 처리, 강릉-울릉도간 부정기 항공노선 개설을 비롯한 이 업체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 업체는 사업계획을 통해 강릉-울릉도간 1백68km를 50분에 운항, 1인당 편도운임 9만원을 받고 하루 2왕복 운항하겠다고 밝히고 이를위해 W-3A SOKOL(폴란드제) 헬기 3대의 도입계약을 이미 체결했다고 건교부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강릉을 중심으로 전국 각 지점으로 헬기 운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업체측은 밝혔다.

세계 항공여객수 작년대비 6% 증가

세계각국 공항을 경유하는 항공여객의 수는 꾸준히 늘어 올상반기중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

해 6% 증가했으며 이 상승세를 주도한 것은 유럽 및 환태평양 국가들이라고 9월 7일 공개된 국제 공항회의(ACI)보고서가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공항 협의기구인 ACI는 통계수치를 제시한 세계 4백8개공항을 통한 화물이동량도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올 1~6월중 4백8개공항을 통과한 여객의 수가 작년동기의 10억1천만명보다 5천만 명이 많은 10억6천만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교육훈련원 준공

아시아나항공은 8월 28일 오전 유상열 건설교통부 차관과 박성용 금호그룹회장, 박삼구사장 등 내외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훈련원 준공식'을 가졌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교육훈련원은 지하2층, 지상5층의 규모로 B747, B767, B737 비행기의 시뮬레이터 등 최신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아시아나 항공은 앞으로 이곳에서 운항, 객실, 컴퓨터 등 항공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요르단-이스라엘, 홍해에 공항 공동건설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지난해 체결한 평화조약에 따라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 28일 항공노선을 연결하고 홍해에 새로운 공항을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요르단에서 합작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갖고 ▲요르단 암만공항-이스라엘 베냐민공항간에 항공편을 주 5회 운항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또 ▲요르단 아카바와 이스라엘 에이라트 등 홍해 연안 휴양지 2곳과 인접한 곳에 합작으로 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바다에 뜨는 공항 "금세기중 착공"

일본운수성 항공심의회는 8월 24일 제7차 공항정비5개년(1996~2000년)계획 중간보고에서 해상의 대형 浮體式 구조물(메가플로트) 위에 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 히라누마 다케오(平沼赳夫)운수상은 금세기중 착공예정인 수도권 제3공항의 입지에 대해 '내륙은 어렵고 해상

이 유력하며 메가플로트위의 浮上공항도 선택대상의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난 4월 조선 및 철강분야 17개회사가 운수성의 지원아래 「메가플로트기술 연구조합」을 설립, 오는 11월부터 東京灣에서 부상공항건설가능성에 대한 실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조합은 「부상공항은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해상에 거대한 부상구조물을 띄워 계류시설로 이를 고정시키고 그 위에 공항을 건설하는 이 공법은 △공기가 짧고 △자연환경에 영향이 적으며 △수심이 깊고 지반이 약한 연안의 매립보다 비용이 덜 들고 △지진 등 천재지변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다고 이 조합은 밝혔다.

울산공항 15일부터 4개 월간 폐쇄

울산공항이 활주로 확장공사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4개월간 폐쇄하고 (주)한진건설의 시공으로 길이 1천5백m, 폭 30m의 현 활주로를 2천m와 45m로 각각 확장한다고 발표했다.

부산항공청은 이 기간 항공기를 이용하는 울산승객들의 불편

을 줄이기 위해 포항공항의 포항-서울간 왕복 11편을 13편으로 증편하기로하고 증편 항공기의 운항시간도 오전 10시대와 오후 4시대로 조정하도록 항공사측에 요청했다.

또 김해공항에 대해서는 현재 탑승률이 76%에 불과해 별도의 증편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나 승객이 폭증할 경우 추가 증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인천 울도에 항공유 전용부두

대한항공은 인천에 항공유류 전용부두를 완공하고 9월 5일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과 정부 및 업계 관계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천의 울도 해상 현지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된 항공유류 전용부두는 길이가 3백30m로 유조선과 송유관을 연결하는 로딩암 2기, 부두에서 인근의 울도 항공유 비축기지로 이어지는 16인치 및 22인치 송유관 각각 55km, 최첨단 하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5만T급 대형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다.

93년10월 착공, 총공사비 1백95억원이 들어간 이 부두의 준공으로 대한항공은 영종도 국제공항 개항 이후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항공기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한·북구 직항로개설등 합의

우리나라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구 3국은 9월 5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갖고 직항로 개설과 지정항공사의 복수제, 항공기 부품등에 대한 면세혜택 등을 골자로 하는 항공협정문에 가서명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총 21개조의 본문 및 부속서로 구성된 협정의 가서명으로 양국의 지정 항공사가 주 2회의 정기 노선을 개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지금까지 북구를 가기 위해 중간기착지에서 외국항공기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덜어질 것을 기대된다.

이번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장기호 외무부 통상국장, 북구3국에서 해닝 스프엔버그 덴마크 교통성차관보등 각국의 항공담당 관계자가 참가했다.

공항이용료-주차료 10월부터 올라

전국 공항의 여객 이용료와 주차료, 항공사들의 공항이용을 위한 각종 사용료 등이 오는 10월

1일부터 대폭 오른다.

건설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여객들의 공항이용료를 국제여객의 경우 현행 8천원에서 9천원으로, 국내 여객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차장 사용료는 김포공항에 한해 소형자동차는 30분당 현행 8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형 자동차의 경우 승합자동차는 30분당 1천1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화물, 특수자동차는 현행 30분당 1천1백원에서 1시간당 1천6백원으로 조정된다.

항공사들의 공항사용료는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계류장 사용료 등이 각각 10%씩 오르게 된다.

한편 현재 달러화를 기준으로 각 항공사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착륙료 등은 내년1월1일부터 원화기준으로 변경된다.

〈인사〉 델타항공 한국지사장에 유내형씨

美델타항공 한국지사인 (주)델타에어에이전시는 최근 대표이사 사장에 유내형 재향경우회 회장을 선임했다.